

[조금 길어요. 시간이 나실 때 읽어주세요][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요.]

김태형님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생에 무언가 좋은 일을 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분, 수많은 ARMY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상에 내려온 천사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나 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태형님의 부모님께 태형님을 이 세상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태형님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태형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알아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태형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도 다 사랑해요. 할머니는 하늘에서 태형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한다, 태형아. 계속 빛나렴, 내 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분은 바로 태형님, 친구의 오디션에 가 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인도에 사는 이시카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나이 차이도 있겠죠.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태형님을 사랑하지만, 태형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 태형님께 알리고 싶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처음으로 태형님이 춤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봤습니다. 물론 처음엔 외모에 끌렸습니다. “와! 정말 잘생긴 분이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춤추는 모습도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춤을 추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마다 춤을 춰요.



코로나가 끝난 후 2년 전쯤 다시 태형님을 접했어요. 그때부터 영상, 인터뷰, 소통하는 모습 등 모든 걸 보게 됐어요. 그때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태형님의 내면이 외모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매일 태형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춤추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태형님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형님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죠.

제가 슬플 때면 태형님의 웃는 얼굴, 웃음소리, 그리고 귀여운 행동을 보며 하루가 나아졌어요. 태형님이 슬퍼 보일 때는 안아드리고 모든 문제를 없애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태형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세상으로부터 지켜드리고 싶었고, 태형님이 진정한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랐어요.

태형님은 어느새 제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없었고, 사랑도 멀리하게 됐었거든요. 제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렸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바로 태형님 덕분이에요.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에게 사랑이란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을 때 그들은

다양한 답을 줬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태형님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현실에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태형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태형님의 행복, 미소, 그리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그런 사랑이 너무 깊어진 걸 깨달았을 때는 태형님과 절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울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태형님이 이 글을 절대 읽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제 감정이
스스로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안 하거나, 사랑하면 전부를 다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태형님께 드렸습니다.

아! 연탄이를 빼먹었네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죠. 저도 꼭 한 번 쓰다듬어 보고 싶어요.
강아지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취직하면 연탄이를
담은 강아지를 입양해 연탄 2.0이라고 이름 붙이려고요. ☺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들도 정말 멋지세요! 정국 씨는 엄청난 재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태형님과 친하셔서 더 좋습니다. 박지민 씨는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목소리도 정말

달달해요. 태형님과 소울메이트 같아요. 민윤기 씨는 랩과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김석진 씨는 훌륭한 인격을 지니신 것 같아요. 정말 다정하시고 사랑스러우세요. 정호석 씨는 춤의 대가라서 제가 더 좋아해요.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김남준 씨는 정말 위대한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형님. 최고예요. (죄송해요!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 태형님은 뛰어난 댄서, 가수, 래퍼, 색소폰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테니스 선수 등등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태형님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머릿결은 매끄럽고, 눈은 영혼으로 가는 창문 같아요. 그 눈에는 많은 기억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언젠가 저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날도 오겠죠.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당연히 태형님을 사랑하고, 태형님을 위해 뭐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형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태형님도 저를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혹시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태형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태형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DM 초대도 받아주시고요. 다음엔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 만납시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혹은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비밀 팬,

이시카